

폐허를 법당으로 일군 보각 스님 자서전



폐허가 되다시피한 수락산 석림사를 수행 도량으로 일군 보각 스님. 스님은 오늘도 손수 밭을 갈며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사진제공=효림

한국전쟁이 끝난 후 모두가 어렵게 살아가던 그 시절, 소화교를 겨우 마친 소녀는 병원에서 '무면허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 불교계에는 정화로 인해 부상자가 속출했고, 소녀가 일하던 병원에도 다친 스님들이 입원해 간호를 받고 있었다. 그때 한 스님이 건넨 <팔상륙>은 이 '간호사 소녀'를 '보각 스님'으로 바꾸어 놓았다.

수락산 석림사 주지로 40여 년간 사찰 중창불사와 지역포교에 앞장서 온 보각 스님이 자서전 <스님, 바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를 펴냈다. 출가 사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외적인 활동에서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비구니 스님이 자서전을 펴낸 것은 한국 불교계에서 드문 일이 아닐 수 없다.



스님, 바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보각 스님 지음 효림 | 1만원

1954년 상인 스님을 은사로 선학원에서 출가한 보각 스님은 효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받았다. 이후 강원도 선방에서 수행 정진하던 스님은 은사 스님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절을 일으켜 세우라"는 뜻을 받들어 59년부터 석림사 주지를 맡게 됐다. 기울어져가는 법당에서 겨울이면 직접 땀감을 구하고 살림도구도 남이 쓰다 버린 것을 주워다 써야 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다 여름 장마 때 법당 대들보가 무너져 신도 한 명이 다치는 사고를 겪자 스님은 법당을 헐어 버렸다.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았던 터라, 마당에 텐트를 치고 살며 안 먹고 안 쓰고 약재같이 시주금을 모아 법당 기둥을 하나씩 세워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힘들 때 마다 '후학들이 마음 놓고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절을 일으킨 스님은 석림사의 역사라 할 수 있는 지난 40여 년간의 중창불사 과정을 자서전에 생생히 담아 놓았다. 또한 스무 명이 넘는 아이들과 어르신들 돌보기 위해 매일 산데미 같은 땀샘을 하고 손수 농사를 지어야 했던 이야기도 눈물겹다. 스님은 "돈 고생, 몸 고생, 마음 고생도 많았지만 석림사는 내게 인욕수행 도량이었다"며 "석림사가 후학들의 든든한 수행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민족 정서 숨쉬는 우리 불화



불화(佛畵)는 크게 건물 목재의 표면에 채색된 단청과 고정된 벽면에 채색하는 벽화, 종이나 비단 등에 채색해 불상 뒤에 거는 탱화로 구분할 수 있다. 법당과 불전을 장식하는 불화를 조성하는 일은 오랜 경험과 인고의 노력을 요하는 작업으로, 구도의 한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불교미술을 조성하는 이들은 불모(佛母)라 부른다.

<그림으로 만나는 부처의 세계-탱화>는 사찰 법당 내부에 모셔진 탱화와 전각이나 전통건물에 채색되는 단청 등에 그려진 다양한 형상을 소개하는 책이다. 지은이는 김익식 화백. 1975년 불교미술에 입문한 김 화백은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대상(1990)과 대한민국 전통공예대전 대통령상(1993)을 수상했으며, 1995년 단청문화재 수리기술사 제416호로 지정된 전통 불화작가다.

한국인이면 누구나 직·간접으로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아왔으며, 불화에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삶, 장구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민족의식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다. 책에는 지은이가 현장에서 붓과 씨름하며 흘렸던 땀방울이 담겨 있다. 1장 '한국의 불교미술'에서는 자신이 직접 그린 탱화와 현재 사찰에 봉안된 탱화 사진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의 역사를 개괄한다. 2장 '그림으로 만나는 부처의 세계'에서는 사찰의 성립 과정과 전각이 갖는 의미, 각 전각에는 어떤 탱화가 모셔지는지를 설명한다. 3장 '전통문양, 그 아름다움과 상징의 세계'는 김상문, 태극문, 삼보문, 보살화당초문 등 단청과 탱화에 쓰이는 전통문양은 어떤 것이 있으며, 각각의 문양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를 짚어본다.

4부 '다시 피어나는 전통 불교미술'은 이 책의 백미(白眉)로, 김 화백의 30여년 노하우가 담겨 있다. 탱화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인 '출초(出草)'에서부터 종이나 형질을 걸쳐 불이는 매질(緞接), 다투나무를 이용해 전통한지 만드는 법, 물감이 스며들지 않도록 종이에 아교를 바르는 법,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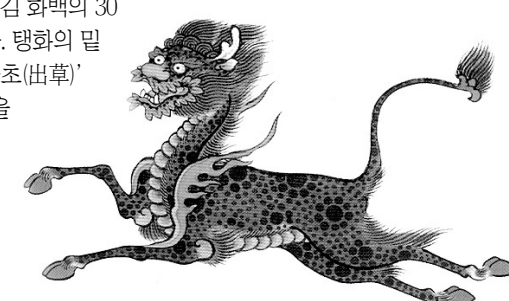
그림으로 만나는 부처의 세계-탱화 김익식 지음 | 윤주사 | 2만원

입히는 법까지 '탱화 조성의 모든 것'을 갈무리해 입문자들의 정갈다리가 되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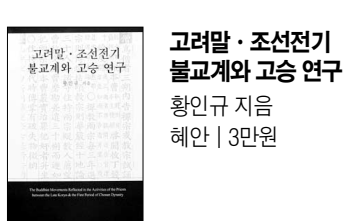
한편 김 화백은 '평목적 답사에서 오는 도식화된 필선이나 도상의 반복에서 오는 정체성'이라는 현대 불교미술에 대한 비판이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이 같은 지적은 전통미술과 종교미술이 가지는 한계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며, 불화의 표현기법이나 작업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불교미술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면 사찰에서 쉽게 스쳐가기 쉬운 탱화와 단청 등에 눈길이 좀 더 머물 수 있을 것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여말선초 스님들은 어떻게 살았나



고려말·조선전기 불교계와 고승 연구 황인규 지음 혜안 | 3만원

시гийн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까지의 불교계와 고승들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그 시대 불교와 역사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 책이다. 이미 전자 <고려후기·조선초 불교사 연구>에서 고려 후기부터 여말선초에 이르는 불교계를 살펴보았던 지은이는 이번 책에서 여말선초에서 조선 전기까지의 불교계와 고승들을 짚어 보고 있다. 지은이는 "우리는 오랫동안 유교적 가치 속에서 살아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유교적 가치관이 성립된 것은

16세기 중엽 이후이며, 그 이전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불교적 세계관과 사상관을 알아야 우리의 역사전통이나 정신세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1부에서는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에 이르는 시기에 활동한 고승과 불교사 책을, 2부에서는 불교계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수선사계와 가지산문계 고승들의 활동을 검토한다. 3부에서는 신돈과 경한 스님 등 대표적인 고승들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시도한다.

염불선의 정수 '염불환향곡' 최초 완역

<염불환향곡>은 18세기의 기성책선(箕城峽善) 선사가 우리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자고 지은 '염불송'입니다. 뜻이 깊으면서도 내용이 쉽고 운율이 부드럽러워 조선 이후 부처님을 찬양하는 염불로 널리 사용되었던 아름다운 송입니다.

<염불환향곡>은 염불 정진하여 고행(극락정토)으로 돌아가기를 서원하는 염원이 담긴 책입니다. 현대불교신사서는 처음으로 <염불환향곡>을 한글로 완역했습니다. 법보 사용으로 매우 훌륭한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송고한 신심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보급문의 (02)737-0695

일광스님의 신행수기, 기도발 이야기

기도발 祈禱發

부처님의 가피력은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불자에게 발현된다.

해가 중천에 뜨면 온 세상을 비추어 세상의 만물을 생성 존재하게 하지만 해가 먼 바다에서 떠오를 때 가장 높은 산 봉우리를 비추는 것 같이 자각히 기도하는 불자에게 부처님의 기도발이 있는 것이다.

- 본문 중에서 -

기도하는 불자가 아름답다.

사바세계 자력(自力)이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탐진치 삼독의 결정체가 인간이요 사람이다. 여기에 자력이란 실로 어려서움의 극치요 무지의 소산이다. 겸손과 하심을 배워라. 불보살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는 불자가 아름답다.

신광사 홈페이지 : www.kidobal.com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 일광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신광사 (051-442-6556) ※법보사용은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도서출판 현대북스 (051-244-1251)

화제의 신간 단 하루 공부로 평생을 두고 보는

운명비결

누구나 오전에 이 책을 열면, 저녁 뉴스시간 이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훤히 아는 도사가 된다.

누구라도 이 책을 보면 평생동안 자신의 매일매일과 평생의 운수와 운명을 숫자로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

해광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416페이지 / 정가 12,900원

-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운명 숫자와 속명
- 자동차의 번호 숫자와 사주팔자
- 집·사업 전화와 휴대전화의 번호 숫자와 사주팔자
- 부동산(집·땅·가게·사업장) 금액의 사주팔자
- 자동차, 전화, 부동산과 인간의 궁합 보는 법
- 대인관계(사업·교제·결혼·취직)의 궁합
- 인간 일대사를 평생토록 즉시 판단하는 법
- (시험, 건강, 혼인, 매매, 사업, 금전, 소송, 여행, 소원 운세)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그림 당사주 대전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김백만 편저/40,000원 4x6배판/이선일, 진효일 공저/25,000원 신국판/양정민/김성진 지음/30,000원 신국판/양정민/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921-8434 Fax. 929-3470 입금계좌: 390-04-150044 조흥은행 예금주(소광호)

易學, 더 이상의 학문은 없다

21세기 새개념의 연역법 -완결편-

- 능형방정식은 몇 천년간 내려온 두루물싹한 이론을 세계 최초로 수회하여 공식에 대입하였다.
- 격국(용, 희신=추구하는 삶)과 심체질(원초적인 본능=끌러가는 삶)이 나오며, 운의 순유(마음의 만족)와 격국의 크기(상, 중, 하)까지 나온다.

왕초보부터 외국인까지 이 책 한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년권 이세진 지음 / 신국판 / 408페이지 / 정가 25,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신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사

최근 이혼을 급증! 당신의 사주팔자가 세상을 바꾼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페이지 / 정가 50,000원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까지의 심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롭게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감흥을 발휘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